

# 비문학 독서감상문의 인용 양상 고찰\*

박수지\*\*

## <차 례>

- I. 서론
- II. 비문학 독서감상문과 인용
- III. 비문학 독서감상문의 인용 양상 분석
- IV. 비문학 독서감상문의 지도 내용 분석
- V. 결론

## I. 서론

독서는 책을 읽고 의미를 구성하는 독자의 개인적 사고 행위(미시적 독서)인 동시에 사회적으로 소통되는 책을 매개로 한 사회 참여 행위(거시적 독서)이기도 하다. 현대 사회는 수많은 분야의 책을 통해 소통이 이루어지고, 학생들도 역시 동시대인으로서 책을 통해 ‘학교 밖 문식성’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이와 같은 독서 현상의 본질을 고려할 때, 국어 수업에서는 미시적 독서만이 아니라 독서의 거시적 측면도 좀 더 적극적으로 지도할 필요가 있다. 이 때, 학생의 독서편식을 지양하고 읽기 능력(독서능력)을 균형적으로 발달시키기 위해, 비문학 독서 지도 방안에 관한 연구가 절실한 실정이다.

---

\* 이 논문은 2009년도 부산교육대학교 교육연구원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 부산교육대학교 국어교육과(sjpark@bnue.ac.kr)

현재 국어 수업에서 거시적 독서는 독서감상문 쓰기와 연계하여 제시되고 있다. 독서감상문은 책을 읽은 독자가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자유롭게 쓰는 글로서, 독서의 대상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흔히 문학적 책 읽기에만 한정된 것으로 오해하기 쉽다. 사실 문학 독서에 비해 비문학 독서는, 정보를 전달하는 비문학 도서의 특성상 초등학생이 부담스러워할 수 있다. 이 때, 초등학생들에게 이미 친숙하고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형식의 독서감상문과 같은 글을 활용한다면, 비문학 독서 지도가 한층 용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맥락에서 많은 분량의 사실과 정보를 다룬 비문학 도서의 특성을 감안할 때, 초등학생들의 비문학 독서감상문의 실태에 대한 고찰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았다. 이 연구는 비문학 독서감상문 쓰기에서 사실 위주의 비문학 도서에 대한 언급이 인용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고, 초등학교 6학년 비문학 독서감상문의 인용 양상을 분석하고, 현행 독서감상문 관련 지도 내용을 검토한 다음, 이를 토대로 비문학 독서 지도의 교육적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 II. 비문학 독서감상문과 인용

### 1. 비문학 독서감상문과 인용의 관계

흔히 독서감상문은 ‘책의 내용을 요약하고, 감상을 쓰는’ 비교적 단순한 구조의 텍스트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1학년도 충분히 쓸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독서감상문 쓰기를 강요하면 자발적 독서가 저해된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한다.

그렇지만, 독서감상문 쓰기는 수동적으로 추수되는 독후활동이 아니라, 읽기 과정과 병행하면 능동적으로 독서의 깊이를 더해주는 생산적인

활동이 될 수 있다. 독서감상문을 쓰려면, 독자는 읽은 책의 내용을 요약하고 생각이나 느낌을 덧붙이면서, 동시에 독자 아닌 필자로서 자신만의 텍스트를 창조하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독자가 이해한 방식으로서의 책의 내용이 정리되고, 독서 과정 전반에서 형성된 생각과 느낌이 고스란히 담겨지게 된다.

즉, 책을 읽고 쓰는 과정을 통해 독자는 스스로 생각하고 성장하는 기회를 갖는 것이다.<sup>1)</sup> 그래서 독서감상문의 질은 독자의 쓰기 능력이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독서능력과 직결되어 있다. 따라서 학생들의 심화 독서를 위하여 독서감상문 지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책의 목적과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비문학 독서감상문 쓰기는 문학 감상문 쓰기와는 분명 다른 방식으로 지도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지식을 전달하려는 비문학 도서는 기본적으로 엄청난 양의 지식과 복잡한 체제를 갖추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책 전체의 방대한 정보를 짧은 글로 요약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비문학 독서감상문 쓰기에서는 책 전체 내용의 요약보다는 책에서 제시한 사실(지식, 혹은 정보)을 이해하고, 그 사실에 대한 언급이나 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적절하게 서술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 더 필요하다.

이 때, ‘인용’이라는 언어 행위가 읽기나 쓰기 양 측면 모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비문학 책을 읽고서 어떻게 내용을 정리할까 고민하다가 책 내용을 그대로 베껴 써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비문학 독서감상문 서술 과정에서 인용 방법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도움이 될지 이해할 것

1) 이와 관련하여 마스다 신이치는 독서감상문의 유형을 5단계 20유형으로 제시하였다(손정표, 1999, 김명수 2003 재인용 참조). 1단계는 단순반응 단계로 독서 후 느낀 점을 단편적으로 줄거리와 함께 쓴 단계이고, 2단계는 내용 이해 단계로 책의 내용에 대한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단계, 3단계는 자기 판단 단계로 책을 읽고 자신의 생각의 내용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단계, 4단계는 행동 변혁의 단계로 주제나 내용을 자신의 문제처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 자신의 생각이나 행동하는 방법을 고쳐나가는 형태로 쓰는 단계, 5단계는 인간 변혁 단계로 책을 읽고 인식뿐만 아니라 생활 그 자체를 향상시켜나가는 모습을 문장을 쓰는 단계이다. 그러나 이 논의는 문학 감상문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이다.

또, 인용의 과정은 읽은 책의 편린이 자신의 독서감상문 속에서 겹도는 표절 형태가 아니라, 하나의 텍스트로 융합하게 만드는 중요한 표현 방법이기도 하다. 학생이 읽은 책에도 인용이 있었고, 학생이 직접 쓴 독서감상문에도 인용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문화적 짜임 속에 존재하는 상호텍스트성의 발견이자 창출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학생이 평생독자나 평생필자로 성장하는 데 원동력이 될 것이다.

## 2. 비문학 독서감상문과 인용의 기능

비문학 독서에서는 사실 위주로 전개되는 책의 특성에 따라, 독자의 인상적인 감상보다는 사실에 대한 논리적 이해가 더 중요하다. 이 때, 책에 언급된 사실을 매개로 하여 학생이 읽은 책과 직접 쓴 독서감상문은 일종의 참조성을 띄게 된다. 이런 맥락에서 비문학 독서감상문 쓰기에서 상호텍스트성(intertextuality)<sup>2)</sup>의 실체가 가시화된다.

상호텍스트성은 문예비평 분야에서 활발히 연구되고 있지만, 텍스트가 소통되는 문화 전반에서 수용과 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기제로서 텍스트언어학의 연구 대상이기도 하다. 아직까지는 전문가들의 작품 분석 위주의 논의가 주류이다 보니, 교육 내용으로서 가시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호텍스트성은 학생들에게 꼭 설명되어야 할 개념이다. 책이 왜 문화의 산물인지를 설명해 주고, 독서가 왜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하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매우 강력한 실체이기 때문이다. 상호텍스트성은, 소통되는 모든 텍스트는 다른 텍스트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항상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단서

2) 상호텍스트성의 개념 정의나 특성에 대해서는 널리 논의되고 있으므로, 이 논문에서 굳이 상호텍스트성 개념 자체를 다시 서술하지는 않는 대신, 상호텍스트성이 지니는 교육적 의의나 기능에 주목하여 서술한다.

이기도 하다. 이는 자연스럽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형태로 비문학 독서 지도를 가능하게 하고, 이를 통해 학생들의 자발적인 독서를 유인할 수 있기도 하다. 이런 접근 방식은 학습에 도움이 되는 교과독서에도 적용된다.

그래서 구체적인 실체로서 인용 행위는 비문학 독서감상문에서 사회문화적 맥락과 상호텍스트성의 관계를 가시화하는 기능을 한다. 인용은 ‘어떤 화자/필자가 다른 사람의 말/글을 옮겨와 자신의 텍스트를 만드는데 사용하는 과정이자 기제’이기 때문이다.

김병욱(1993)은 인용과 관련하여 “한 텍스트가 다른 텍스트들의 인용, 흡수에 그치지 않고 다른 텍스트들을 잉태, 생산해내는 ‘다시쓰기’ 과정”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텍스트의 생성과 존재의 필수조건을 인용이라고 하고, 바로 이 인용에 의해 텍스트의 상호성(상호텍스트성)이 드러난다고 했다.

이원표(2005)는 인용에 대해 전통언어학에서 연구되던 방식을 넘어 최근에는 인용의 담화·화용적 기능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고 소개한다. 필자가 자신의 텍스트를 창출하는 과정에서 다른 텍스트를 인용하면서 필자의 생각을 표현해내는 방식을 이용하여 소위 바흐쎄(Bakhtin)의 ‘다성성’의 한 예가 되고 있다는 논의를 하고 있었다.

그는 “필자가 다른 사람의 말/글을 이용하여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은밀하게) 드러내는 과정을 ‘목소리내기(voicing)’라 표현한다.”고 하였다. 직접인용이 단순히 객관성과 진정성에 기대어 사실을 전달하는 수준을 넘어, 필자의 의도에 의해 의미·화용적으로 변형되면서 새롭게 필자의 텍스트로 생산되고 있다는 점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인용 자체보다는 인용 행위의 의도나 효과에 주목해야 한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볼 때, 학생들의 비문학 독서감상문에 나타난 인용의 양상을 살펴보는 것은, 거시적 독서로서 비문학 독서 지도 방안에 중요한 시사점을 줄 것으로 본다.

III. 비문학 독서감상문의 인용 양상 분석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의 비문학 독서감상문을 수집한<sup>3)</sup> 후, 결과 해석을 위해 교사 평가를 거쳐 <표 1>과 같이 크게 세 수준으로 구분하였다.<sup>4)</sup>

<표 1> 독서감상문 성적과 책 제목

이름		성별	판정	책 제목(분야)
1	강O현	여	상	생태계가 뭐예요?(과학)
2	강O정	여	중	화석의 비밀(과학)
3	김O한	남	중	이집트(역사)
4	김O현	남	상	천재를 뛰어넘는 33인의 연습벌레들(문화)
5	김O찬	남	하	로봇(과학) * 부진학생
6	김O현	여	상	르네상스(예술, 문화)
7	김O현	여	상	10원으로 배우는 경제이야기(경제)
8	박O주	여	중	일본에 가다(문화)
9	박O환	남	하	스포츠로봇(과학)
10	박O진	여	하	병과 건강(과학)
11	박O지	여	하	초등학생이 알아야 할 어린이 경제(경제)
12	송O아	여	상	나도 돈 쓸테가 있다고(경제)

- 3) 2009년 11월 부산 C 초등학교 6학년 3반 23명(남11, 여12)을 대상으로 하여, 자유롭게 각자 비문학 도서를 선정하여 독서감상문을 40분(1차시) 동안 쓰게 한 후 수집하였다. 학생의 도서가 다양한 이유는, 학급문고의 비치도서가 한정되어 모든 학생이 동시에 볼 수 있는 한 권의 책을 지정할 수 없는 현실적인 이유도 있지만, 그것이 자연스러운 학교 현실이라는 점을 감안한 것이기도 하다. 사실 독서감상문쓰기 대회도 도서를 한 권만으로도 지정하지는 않는다.
- 4) 교사 4인의 평가 중 다수가 정한 등급으로 판정을 하였다. 다만, 집단별 인원수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하’없이 ‘상’이 최소 하나 이상 들어 있으면 ‘상’ 집단으로, ‘상, 하’가 각각 하나씩 든 경우는 ‘중’으로 보정하였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해한다. 비록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미술만이 아니라 과학자들도 대단한 사람이었다면 그는 공을 휘둘러서 칼을 난을 세우는 자들을 사냥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것은 명백해라고 확신하는 것 같다. 만년에 이르러서야 말해줄까? 하디니는 생각도 못한 것이다. 그럼에도 그만 권좌에서 완강하지 못했지만 말이다. 그러곤 1491년 페스트가 휩쓸고 지나간 후에는 게다차가 가물각 되었다. 바로 로렌초의 죽음이다. 그의 예술품들은 사냥이 하여 죽은 것이다. 제2차 그때 유명한 활자의 그림이 상상을 불타고 있다. 매우 아까운 일이다. 4월의 프라타에서는 미켈라와 전라라는 포대를 관볼이 있었다. 지금도 그의 대니타스, 프라타 사람들은 종교의 작품들로 인정받고 있다. 45 예술에 토성이 안팎으로 붙었다고 것을 알 수 있게 된다. 46 미술은 그들의 100년의 1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관견적인 미술만이 아니다. 그는 과학에도 소질이 있었는데 다 빈치가 죽고 나서도 기묘함을 주장하는 것일지라도 공과정에 대해서 입문은 인정해 마땅한 것인데 47년이 밝혀져 있다. 아홉 자음도 의에게서 아홉 자음 낱말 토데상스시데 그때의 대단한 타가들이 있었다면 위의 관견에는 재미있는 내용만 읽을 수 있을까?

7의 경우, 독서감상문의 완결된 구조를 보이고 있으며, 내용 면에서도 책의 내용과 감상을 적절하게 잘 제시하고 있었다. 특히, 글의 전개가 자연스럽고 곳곳에 인용표지를 사용하면서 전반적으로 표현이 우수한 글이다.

#### ㄴ. 최0석 학생(중 집단)-과학 분야

진공 속에서 빛이 나아가는 속도를 '광속'이라 한다. 빛은 자연계에서 가장 속도가 빠르다.

빛! 약 초속 30만 km (3억 m)

로켓! 약 초속 11,200 m

소리! 약 초속 340 m

기차! 약 초속 41.7 m



걷는 사람! 약 초속 1m

빛의 속도는 지구를 1초에 일곱 바퀴 반이나 돌 수 있는 빠르기이다. 우리가 물체를 볼 수 있는 이유는 빛이 물체에 반사되어 눈으로 들어오기 때문인데 빛이 아무리 빠르다고 해도 아주 멀리서 오는 빛은 눈에 도달하는 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만약 우리에게 빛이 없으면 밤에 사람들이 깜깜해서 일찍 잠을 자는 밖에 없을 것이다.

빛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다

ㄴ의 경우는 사실 위주의 서술이 뚜렷이 드러난 전형적인 비문학 독서감상문이라 할 수 있다. 가령, 주요 개념어에 작은따옴표를 사용하거나, 단락 형태로 정보를 비교하여 제시한 것은 일종의 블럭인용과 같은 기능을 한다. 사실이 중요시 되는 과학 도서의 특징이 독서감상문에 반영된 경우로서, 문학 독서감상문과는 확연히 구별된다.

#### ㄷ. 박0지 학생(하 집단)-경제 분야

물가가 상승하는 것을 인플레이션이라 하는데 이 현상이 악화되면 경제활동이 침체된다.

또, 인플레이션의 반대인 디플레이션은 물가가 내려가는 것인데 이것은 돈의 가치를 낮추는 것이다.

이 정보는 경제수업을 하면서 배웠던 내용이었는지 같다.

그리고 전세는 남에게 돈을 주고 집을 빌려 사는 것이다.

위와 같이 전세로 사는 사람들을 위해 대한주택공사에서는 부족한 집을 짓는다.

또저 저금리로 매일 조금씩 모으면 큰돈이 되고 피를 부리면 돈을 모으기 쉽고 남매를 볼 수 있다.

ㄷ의 경우에도 역시 책의 내용이 부분적으로 인용되거나, 학생 자신의 말로 제시된 경우를 볼 수 있다. 경제 분야라는 어려운 도서에도 불구하고 책 내용에 대한 학생의 이해 정도는 분명히 인지되는데, 다만 구조의 미완결성이나 단락 구분이 없는 점이 아쉽다.

이상에서 상중하 판정을 받은 세 집단의 사례를 보면, 예상대로 비문학 독서감상문에서 학생들은 책의 전체 내용을 요약하기보다는, 특정 부분을 발췌하여 제시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인용표지를 사용한 예도 많이 눈에 띄었다.

이제 학생들이 책 내용의 일부를 가져와 서술하는 방식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례를 위주로 살펴보자.

#### ㄹ. 김0현 학생(상 집단)-문화 분야

ㄹ의 경우, 본문 내용으로 책의 일부를 발췌하여 제시하고 있으나, 앞 뒤 연결이 다소 부자연스럽다.

난오늘 이 전재를 뒤어 넘든 33인의 연습벌레들  
 ② 를 보았었다  
 우리들이 알고있는 유명한 스타들이 33  
 이 나왔었다  
 이 책은 어린아이들에게 게 꿈을 심어주고 인생의  
 지혜가 담겨 있는것 같았다  
 그리고 유명한 아스타가 되기 전까지의 과정이  
 들어있고 성공 비결 까지 들어가 있었다  
 5가지의 차례가 있는데 1기분을 소중히 여겨는 리헤1  
 2. 나만의 끼를 살리는 리헤1  
 3. 세상을 향해 마음을 여는 리헤1  
 4. 어려움을 즐기는 열정을 키우는 리헤1  
 5. 오늘보다 새로운 내일을 만드는 리헤1

이렇게 5가지 차에 있어서 시에는 배부수 안왔다

이 책을 읽고 달라진점과 느낀점이  
많이 있었다.

예전에는 실수를 하면 얼굴이 나도 모르게 붉어  
졌었는데 이 책을 읽고 나서는 부끄러워 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고치기 하려 하고 왔다.

또 거의 모든것에 긍정적인것 같다.

뭔가 잘못이나 실수를 하고 이 책을 떠올리면  
자신감이 생긴다.

ㄹ의 경우는 ‘-라고 한다’는 인용표지를 본문에서 세 문장 연속으로 사용하고 있다. 책 내용을 가져올 때 인용하고 있음을 잘 드러낸 경우이지만, 글의 전개(문장의 연결)는 매우 부자연스럽다.

ㅂ의 경우에는 읽기 목적(동기)을 밝히고, 본문에 필요한 내용을 발췌해서 정리해 놓았다. 단락 형태로 제시한 정보가 꼭 학습을 위해 공책에 메모한 듯한 인상을 주는데, 달리 보면 일종의 블록인용과 같은 기능을 한다. 이런 점들이 비문학 독서감상문의 특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ㄴ. 주0우 학생(중 집단)-과학(스포츠) 분야

나는 스포츠를 좋아해서 스포츠를 많이하는데 WHY 책을보니  
스포츠에도 과학이 있다는 것이었다 재미있을것 같아서 보았다  
먼저 야구공을 던질때 심박을 잡고 잘던지면 스피드에서  
공이 커브가 된다고 한다

그리고 축구공을 차는 곳에 따라서 오는 위치, 파워, 정확성이  
다 다르다고 한다

장대높이뛰기는 장대를 잡는 곳과 장대를 짚는곳에 따라서  
높이뛰는 위치와 높이가 다르다고 한다

그리고 스키는 곡선으로하면서 내려가기때문에 눈과의 마찰을

소리가 줄어들어 쉽게 해러올수 있다

양공은 풀을 새로 날이 가기 때문에 조금더 위로 조종해야 한다

이런 화살이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 주변에는 과학이 많이 존재한다.

매일 과학이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다

비. 박O진 학생(하 집단)-과학 분야

이 책을 읽게 되는데는 병과 건강에 대해서 알아보려

읽게 되었다

<서론>

콜레라균: 1883년 독일의 과학자 발견했다

프루테루스균: 음식이 부패해서 생기는 균으로 식물의 원인  
되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바이러스는 공중을 떠돌거나 먼지에  
물 위에 있을 때는 살아남지 않지만  
있다 사람의 몸속에 들어오면  
세포에 붙어 번식해서 병들게 된다.

비결: 세균으로 바꿀게 낫다.

무농약 농작물 먹기 좋다.

이상의 사례)를 볼 때, 사실 위주의 비문학 도서의 특성이 독서감상문 쓰기에 적극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예상대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책 전체를 요약하기보다는 책 내용 일부를 가져와서 서술하고 있었는데, 이는 문학 독서감상문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비문학 독서와 독서감상문 쓰기 지도에서 이에 대한 명시적인 지도가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 5) 이외에도, 학생들은 책의 내용을 언급할 때 ‘이 책’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고 있었으며, ‘책 내용, -페이지, -단원’ 등의 표현도 사용하고 있었다. 또, 독자의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할 때에는 ‘-인 것 같다, -생각이 든다, -느낌이 든다, -궁금하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였다.

## 2. 비문학 독서감상문에 나타난 인용 방법의 분포

이 절에서는 <표 2>의 기준을 통하여 학생들의 비문학 독서감상문을 분석하여 보고, 비문학 독서지도에 관한 시사점을 논의하여 보겠다.

<표 2> 비문학 독서감상문의 내용요소와 분류 기준<sup>6)</sup>

구분	기준		표현의 특징
독자	감상(A)	필자의 생각이나 느낌	필자의 감상만을 서술한다.
책의 내용	전사(B)	그대로 옮겨 쓰기	내용 일부를 그대로 옮겨는데, 인용표지를 사용하지 않는다.
		c. 인용표지 사용	큰 따옴표/절 + ‘-라고 한다’
	인용	c’. 단락으로 구분	단락을 달리한다(블럭인용)
		d. 만들어 쓰기	내용 일부를 자신의 말로 만들어 쓰고 있다.
		d’. 정리/첨언	내용 일부를 간단히 언급하면서, 그에 대한 생각을 덧붙인다.

<표 2>에 의거해 학생들의 비문학 독서감상문을 분석해 보면, <표 3>과 같다.

- 6) 인용은 원저자의 문장과 표현을 그대로 보여주는(show) 직접 인용과, 그에 대해 말하여 주는(tell) 간접인용이 있다(이원표, 2005 참조). 직접인용은 인용되는 내용이나 형식을 그대로 가져와서 객관성이나 진정성을 드러내는데, 인용 표시를 반드시 해야 한다. 책의 출처를 밝히는 것도 한 방법이지만, 대개는 ‘큰따옴표’와 ‘-라고 한다’, ‘단락인용(블럭 인용)’ 등의 인용 표시를 명시적으로 해 준다. 반면, 간접인용은 책의 내용을 자신의 말로 바꿔쓰거나(환언), 책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덧붙여 나타내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실제 학생 글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인용 사례 구분을 초등학교 수준에 맞게 다소 유연하게 적용하였다.

〈표 3〉 비문학 독서감상문의 분석

성적	이름	A	B	C		D		문장수	
				c	c'	d	d'	총수	평균
상	김O현	4	1	3	-	12	4	24	11.4
	김O현	6	-	-	1	2	1	9	
	이O창	3	-	-	-	12	3	18	
	정O주	2	1	3	-	-	3	9	
	강O현	1	3	-	-	1	2	7	
	김O현	2	-	-	-	3	2	7	
	송O아	3	-	-	-	1	1	5	
	임O영	1	3	2	-	2	4	12	
중	강O정	-	3	-	-	3	-	6	9.8
	조O진	3	-	-	-	2	-	5	
	김O한	4	5	-	-	8	-	15	
	박O주	1	1	-	-	8	1	11	
	이O재	-	-	-	-	12	3	17	
	최O석	2	3	1	1	-	-	7	
	조O영	1	3	-	-	3	-	7	
	주O우	2	3	3	-	2	-	10	
하	박O진	2	-	-	1	-	-	3	5.8
	박O지	1	-	-	-	4	1	6	
	이O훈	4	-	-	-	2	-	6	
	김O찬	-	1	-	-	7	-	8	
	박O환	-	-	-	-	6	-	6	
	엄O수	-	3	2	-	2	-	7	
	이O민	-	-	-	-	4	-	4	

전체적으로 독서감상문의 특징인 학생의 ‘감상(A)’이 잘 제시되어 있었다. 초등학교 6학년 수준에서 독서감상문 쓰기는 매우 익숙한 활동이어서, 학생들 모두 책의 제목을 밝히거나 독후 감상을 써야 한다는 점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비문학 독서감상문의 특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교육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책의 내용을 언급할 때, ‘전사(B)’는 성적 집단 별로 ‘직접인용(C)’에 비해, 큰 차이는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었다. ‘직접인용(C)’의 인용표지가 붙지 않은 상태가 ‘전사(B)’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인용표지의 명시적 지도만으로 해결될 문제이다. 비문학 독서에서는 학습과 유사하게 독자(학생)가 책을 읽는 동안 중요하거나 인상 깊은 부분을 따로 메모해 둘 수 있다. 이런 메모는 당연히 독서감상문의 중요한 내용 자원이 된다. 그런데 글을 쓸 때 인용표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전사’가 될 수밖에 없다. 또한, ‘전사’는 서술의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앞뒤 문맥과 자연스럽게 어울리지 못한다. 따라서 ‘직접인용’만 제대로 가르쳐 준다고 해도, ‘전사’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직접인용’ 중에서 ‘단락인용(c’)'이 매우 드물고 미숙하지만 몇몇 사례가 나타났다는 점이다. 물론, 이 사례들이 불완전한 것은, 글의 분량이 기본적으로 적은 탓도 있고, 학생들의 상당수가 단락 구분 없이 글을 쓰는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단락인용’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단락 쓰기에 대한 지도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고, 이후 단락인용의 방법을 지도해야 한다.

셋째, ‘간접인용(D)’이 상중하 집단 모두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났다는 점이다. 특히, ‘만들어 쓰기(d)’가 많이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감상(A)’이나 ‘전사(B)’, ‘직접인용(C)’이 아닌 사례로서, 학생의 말로 만들어 쓴 경우를 모두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특히, 불완전하게 책의 내용을 가져오는 경우는 전사라고 보기 어려워서, 모두 ‘만들어 쓰기’의 사례로 구분하였다. 어쨌든 장기적으로 보면 책의 내용을 가져올 때는 기본적으로 간접인용의 표지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sup>7)</sup> 그렇지 않으면, 원전의 표절과 간접인용의 경계가 무너지기 때문이다. 향후 간접인용의 방법에 대한 각별한

7) 최선경(2009)은, 대학생의 글쓰기에 나타난 가장 대표적인 오류가 바로 ‘인용 방식의 문제’라고 한다. 직접인용의 경우, 인용표지를 사용하지 않거나, 간접인용의 경우 원문을 그대로 가져와 직접인용에 가깝게 쓰면서 필자의 생각과 구별이 되지 않게 표현하는 경우도 발견되었다. 학문적 글쓰기와 표절이 금기시 되는 연구 윤리를 고려한다면, 이런 현상은 우려할 만한 것이다.

지도가 요구된다.

넷째, ‘정리/첨언(d)’의 경우는 무엇보다도 판정 집단 간의 차이가 뚜렷이 드러났다는 점이다. 중하 집단에 비하여 상 집단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나타났는데, 이는 책 내용에 대한 독자의 생각이 단지 감상(A) 수준이 아니라 책 내용에 이어 생각을 첨언하는 방식으로 쓴 표현이 상 판정을 받게 한 큰 요인이라는 점을 추론할 수 있다. 향후 이 부분에 대한 지도가 비문학 독서감상문의 질을 높이게 될 것이라 기대하게 한다.

이외에 특징적인 사항을 살펴보면, 우선 상 집단은 글의 분량도 평균적으로 많지만 그만큼 분석 유형도 골고루 나타나고 있는데 반해, 하 집단의 경우는 분량도 매우 적고 기준의 분포 양상도 빈곤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하 집단 내에서 ‘만들어 쓰기’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책의 내용을 학생 자신의 말로 잘 바꾸어 썼다기보다는 이해한 만큼의 내용을 자신의 말로 나열했다고 보는 편이 더 적절한 해석일 듯하다.

중 집단은 집단 내에서 ‘정리/첨언(d)’에 비해 ‘만들어 쓰기(d)’가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나고, 상 집단에 비해 ‘전사’가 많은 것에 비추어 볼 때, 두 집단의 판정의 차이가 바로 이 점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가 하는 추론이 가능하다. 이는 중 집단의 학생들에게 독서감상문을 지도할 때, 인용표지를 사용한 ‘직접인용’을 지도하거나, 책의 내용에 대해 정리하고 의견을 덧붙이는 ‘간접인용’의 방법도 명료하게 지도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리고 이 과정은 동시에 중 집단 학생으로 하여금 읽은 책에 대해 심도 있는 생각을 형성하도록 유도하는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또한 글의 분량이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지만, 평균 문장수가 상(11.4), 중(9.8), 하(5.8)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글의 분량이 많다고 해서 상 집단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글의 분량이 적으면 유형별 다양성도 감소하기 때문에 상 집단이 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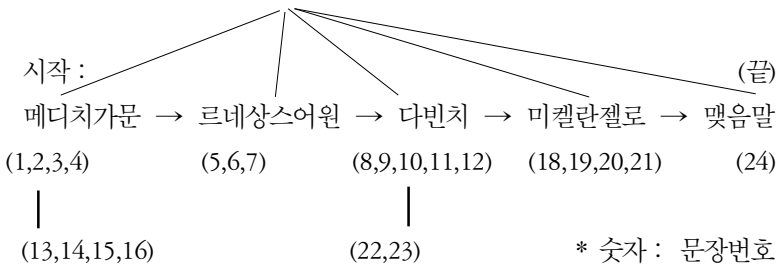
### 3. 비문학 독서감상문 구조의 깊이와 체계

비문학 독서감상문의 특징과 인용의 관계에 대한 해석을 보완하기 위하여, 비문학 독서감상문의 구조를 ‘깊이(위계적 복잡성)’와 ‘체계(내용 간의 연관성)’에 의거하여 검토해 보았다.

가장 우수한 판정(교사 4인 평가 일치)을 받은 ㅅ의 글을 보면, 인용의 유형이 골고루 나타나고 글의 구조가 일정한 ‘깊이’나 ‘체계’를 갖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ㅅ. 김0현 학생(상 집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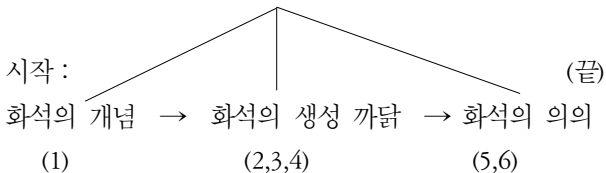
르네상스(책의 제목, 독서감상문의 제목)



반면, 중 집단의 ㉠의 경우는, 글의 분량(문장수 6개)이 적고 인용의 분포 유형(전사, 간접인용)도 단순하여 양적으로는 분명 하 집단에 속할 것 같은데, 중 수준으로 판정받은 이유는 다음과 같이 텍스트 구조가 나름대로 완결성을 보이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 강0정 학생(중 집단)

화석의 비밀을 읽고나서(독서감상문 제목)



같은 중 집단에 속하는 ㅈ의 경우는, 문장수가 17개로 중 집단 문장평균수(9.8)를 크게 상회하는 학생이지만, ‘감상과 전사’가 많고, ‘간접인용’의 경우 ‘만들어 쓰기’만 있다. 양적 분석으로는 앞의 ㅅ보다 나은 것 같지만, 구체적으로 내용 전개가 일관성이 없고 글의 마무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정보 분량이 많은 책의 특성이 독서감상문의 내용 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다.

ㅈ. 김O한 학생(중 집단)

이집트(책제목, 독서감상문 제목)

시작 :

기원과 역사 → 현대 이집트 → 피라미드 → 외세침략 → 낙타  
(1,2,3)                      (5,6,7,8,9)                      (10,11)                      (12,13)                      (14,15,16,17)

중 집단에서 눈에 띄는 ㅈ의 경우도, 문장수 15개로 집단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만큼 전체적으로 책을 이해한 바대로 원전을 정리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덧붙여 자연스럽게 독서감상문을 서술하여 다음과 같이 안정적인 구조를 보이고 있다. 그렇지만, 독서감상문 전체가 ‘간접인용’에만 국한되고, 그 중 ‘만들어 쓰기(12/15)’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평가자의 관점에서 이는 독서감상문이 아니라 책의 내용을 단순히 정리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았기 때문에 중으로 평가된 것으로 보인다.

ㅈ. 이O재 학생(중 집단)

대자연의 왕국 남아프리카 공화국(책제목, 독서감상문 제목)

시작 :

희망봉 → 이민자 → 보어인 전쟁 → 남아프리카연방 → 남아공의 현재 (끝)  
(1,2)                      (3,4)                      (5,6,7)                      (8,9,10,11,12)                      (13,14,15)

하 집단의 ‘박O환 학생’의 경우는, 글 전체가 ‘만들어 쓰기’로 되어 있어서 인용 분포의 단순성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학생 자신이 이해한 바대로 책의 내용을 단편적으로 나열하고 있어서 독서감상문의 구조를 전혀 갖추고 있지 않았다. 이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비문학 독서감상문의 특징과 쓰기 방법을 기본적으로도 명시적으로 지도할 필요가 있다.

이상으로 비문학 독서감상문의 구조와 인용 양상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비문학 독서의 특성 상 특히 책 내용에 대한 서술이 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 이는 당연히 글의 구조나 인용과 연관될 수밖에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중 집단의 경우는 독서감상문의 구조와 인용 유형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고, 상 집단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인용 표현의 취약점을 개선하게 하는 지도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 IV. 비문학 독서감상문의 지도 내용 분석

앞절에서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의 비문학 독서감상문에 나타난 인용 양상의 분석을 통해 비문학 독서감상문의 특징과 인용 실태에 관한 구체적인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이를 토대로 이 절에서는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대상으로 하여, ‘비문학 독서 지도, 비문학 독서감상문 쓰기 지도, 인용 방법의 지도’ 등이 제시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자.

7차 교육과정에서 독서감상문 쓰기 관련 내용은, 4학년 문학 영역의 ‘4-문-(6) 읽은 작품에 대해 독서록을 작성하는 태도를 지닌다.’에서 찾아볼 수 있다. 교과서 내용을 보면, 독서감상문에 들어갈 내용요소는 ‘내용과 느낀 점’이 기본이다.

2. 읽은 글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글로 쓰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35~137쪽의 <가>, <나>, <다>를 읽고, 어떤 방법으로 읽는 지 알아봅시다.

**가**

소영이에게  
소영아, 나는 지난 주에 풍물이 나오는 외국 풍과 한  
편을 재미있게 읽었어.  
이빨이 단 게나 되는 어떤 풍물이 유명한 외국 의사에  
게 전화를 걸어, 자기의 이빨을 치료해 달라고 하였어. 의  
사 선생님은 그 풍물이 매우 잘 짓이라고 생각하고 어떻  
게 치료해 주어야 할지 걱정하면서도 의안을 다해 치료해  
주기로 하였어. 그리고는 준비를 서둘렀어.  
머리 뒤, 영진 문을 열고 끌어서는 풍물은 아주 조그만  
달팽이였단다.  
나는 달팽이의 이빨이 단 게나 된다는 사실을 처음 알  
았어. 또, 치료하기 힘든 환자라도 최선을 다하는 의사 선  
생님의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았어.  
소영아, 너도 한번 읽어 봐. 가슴이 뭉클할 거야. 책은  
내가 빌려 줄게. 다 읽고 나서 내가 생각하거나 느낀 점  
을 들려 주었으면 좋겠어.  
소영아, 책 재미있게 읽어.


○○년 ○월 ○일  
너의 다정한 친구 정현이가

**다**

읽은 책	파브르 곤충기	글쓴이	앙리 파브르
읽은 날짜	○○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곰뽕이

곰뽕곰뽕  
곰뽕이.  
겨우리고  
느려서  
못난이인 줄 알았구나.  
킁킁한 땅 속에서  
심 년을  
참고 기다린 곰뽕이.  
매미 되어  
푸른 하늘  
맘껏 날아라.



3. 읽은 글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독후감으로 쓰는 여러 가지 방법  
에 대하여 말해 봅시다.

#### <4학년 1학기 읽기교과서 135, 137쪽>

그런데, 주목할 점은, 책을 소개하고 추천하는 편지 형식의 감상문과,  
특히 <파브르곤충기>를 읽고 시로 쓴 감상문을 예시글로 제시하고 있  
는 점이다. 물론 단순한 독서감상문의 구조를 탈피하여, 학생의 독서흥미  
를 유발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이기는 하다. 이는 이후 학년의 읽기 교  
과서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2. 내가 읽어서 읽은 책 가운데에서 가장 재미있게 읽은 책을 친구들  
에게 말하여 봅시다.

● 책 이름: \_\_\_\_\_

● 글쓴이: \_\_\_\_\_

● 내용: \_\_\_\_\_

● 느낀 점: \_\_\_\_\_

3. 1에서 적은 책의 이름을 친구들과 비교하여 봅시다. 그리고 우리  
반의 독서왕을 뽑아 봅시다.

우리 반의 독서왕

2. 내가 감동 깊게 읽은 작품에 대하여 '감상 기록장'에 정리하여 봅시  
다. 그리고 정리한 내용을 친구에게 말하여 봅시다.

감상 기록장	
제목 / 글쓴이	
나오는 인물	
감동적인 부분	
작품을 읽고 생각 하거나 느낀 점	
주인공에게 하고 싶은 말	
주제나 내용이 비 슷한 다른 작품	

그렇지만, 사실상 독서감상문 쓰기 방법을 독서감상문의 형식과 동일시하고 있어서, 독서감상문 쓰기의 의의를 인식하게 하거나 혹은 독서감상문에 요구되는 서술 방법이나 표현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지도내용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또한 내용요소가 문학 영역에서 비롯된 만큼, 6학년의 경우에도 문학 작품을 전제로 한 독서기록장의 구조를 보인다. 독서감상문이 문학작품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전제를 다시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7차 교육과정이나 읽기 교과서에서 지적되었던 사항이, 텍스트 특징과 형식을 지도하고자 하는 2007 개정 초등 국어과 교육과정에 서는 해결되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07 개정 교육과정에 나타난 비문학 독서과 독서감상문 지도 내용 중에서 독서(독후활동)와 관련된 지도 내용을 추출하여 <표 4>와 같이 정리하였다.

<표 4> 2007 개정 교육과정에 나타난 독서감상문 지도 내용

성취기준	내용요소의 예	해설서 내용
1-문학-(2)  문학 작품에서 재미있는 내용을 그림이나 말로 표현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작품의 인상적인 부분에 주목하기</li> <li>●작품에 등장하는 재미있는 말이나 구절 등을 활용하여 짧게 표현하기</li> <li>●재미있거나 인상적인 장면을 그림으로 그리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상적인 장면, 재미있는 표현, 감동적인 표현</li> </ul>
3-읽-(3)  독서 감상문을 읽고 책의 내용과 책에 대한 감상을 구별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감상문의 특성 이해하기</li> <li>●책의 내용과 책에 대한 감상 구별하기</li> <li>●여러 독서 감상문을 함께 읽고 비교하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책의 내용을 기록하면서 책에서 얻은 감상을 적은 글</li> <li>●책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거나 해설하고, 느낌이나 감동을 기술하며, 인상적이거나 기억할 만한 것을 언급하기도 하고, 독서 과정에서 자신을 성찰한 내용을 담기도 함.</li> <li>●글쓴이가 정리한 요약이나 해설로부터 책의 내용을 짐작하고, 감상을 쓴 부분으로부터 책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을 이해하게 하며 책이 줄 수 있는 감동이나 의미를 상상할 수 있게 함.</li> <li>●책에 대한 안내자, 대화자</li> </ul>

성취기준	내용요소의 예	해설서 내용
3-쓰-(4) 글을 읽고,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는 글을 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감상문의 특성 이해하기</li> <li>●자신의 경험과 글의 내용 관련짓기</li> <li>●글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정리하기</li> <li>●글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려는 태도 가지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양한 감상문 형식</li> </ul>
3-문학-(1) 문학 작품을 읽고 느낌 점을 말이나 글로 표현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작품을 읽은 느낌 떠올리기</li> <li>●작품의 전체적인 느낌 정리하기</li> <li>●작품에 대한 전체적인 느낌을 말이나 글로 표현하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작품 감상 능력</li> </ul>
4-말-(4) 문학 작품에서 받은 감동을 적절한 표현을 사용하여 말한다.	<p>내용을 요약하고 생각이나 느낌 덧붙이기</p> <p>작품에서 감동적인 부분을 찾아 경험과 관련짓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꾸며 주는 말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말하기</li> <li>●작품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통하여 자신을 드러내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감상을 언어로 표현하고 소통하는 능력</li> <li>●감동 요소를 찾아 자신의 언어로 표현</li> <li>●감동을 표현할 때 형용사나 부사같이 꾸며 주는 말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도록 지도</li> </ul>
4-문학-(4) 문학 작품을 읽고 떠오른 느낌이나 생각을 바탕으로 감상문을 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학 감상문의 특징 이해하기</li> <li>●작품을 읽고 떠오른 느낌이나 생각 정리하기</li> <li>●작품에서 느낀 감동을 정리하고 표현하기</li> </ul>	
6-문학-(1) 자신이 좋아하는 문학 작품을 들고 그 이유를 설명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신이 좋아하는 작품의 특징 파악하기</li> <li>●자신이 그 작품을 좋아하는 이유를 설명하기</li> <li>●읽는 이에 따라 좋아하는 작품이 서로 다른 이유에 대해서 토의하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독서 감상문 돌려읽기</li> <li>●독서 토론</li> </ul>

2007 개정 교육과정의 경우, 3, 4학년 단계에서 독서감상문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독서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시기라고 본 것이다. 교육과정 성취기준이나 해설서 내용 모두, 독서감상문의 가장 전형적인 특징으로 알려진 ‘내용 요약, 필자의 감상’이 학년과 영역 공통적으로 그대로 제시되고 있다.

그런데, 독서감상문에 관해 읽기 영역과 문학 영역의 접근이 다소 다르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3학년 읽기 영역 (3)에서 제시한 독서감상문의 해설과 4학년 문학영역 (4)에서 제시한 ‘문학 감상문’이라는 용어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3학년 읽기 영역에서는 독서 대상을 문학에 한정하지 않았고, 당연히 교육과정 해설서에서는 ‘기록, 요약, 해설, 언급, 의미’ 등의 어휘를 사용하여서 비문학 독서감상문의 실체까지 확인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는 4학년 문학 영역에서 ‘문학 감상문’이라고 따로 사용한 용어에서 충분히 유추할 수도 있다. 4학년 문학 감상문의 해설에는 ‘내용 요약, 감동’ 등의 설명으로, 가장 익숙한 독서감상문의 내용 요소가 나온다.

따라서 독서감상문이라는 용어를 3학년 읽기 영역에서는 비문학이나 문학 모두에서 같이 사용하지만, 4학년 이후 독서감상문은 문학작품의 경우 문학 감상문으로 구체화되기도 하지만, 상대적으로 비문학 독서감상문의 언급이 없어서 사실상 문학감상문과 동일시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한편, 비문학 독서감상문도 감상문으로서 독자의 감상 위주의 글이라 인용 방법을 사용할 필요가 없고, 인용은 책을 소개하는 기능이 강한 서평<sup>8)</sup>이나 책에 대해 논평하는 비평문과 같은 유형에서나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표5 참조). 그렇지만 앞절에서 살펴본 대로 비문학 독서의

8) 서평은 비평문의 한 부류로 분류되기도 하지만, 독서감상문은 제외된다. 서평과 독서감상문의 차이는 박영민(2003)을 참고한 김미선(2009)에서 잘 정리해 놓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논의는 비평문의 특징을 부각시키기 위해, 독서감상문의 특징을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해서 독서감상문의 성격을 다소 평가절하한 감이 있다. 이는 비문학 독서감상문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특징에 따라 초등학생의 비문학 독서감상문에는 인용 사례가 실제로 나타나고 있었다.

〈표 5〉 2007 개정 교육과정에 나타난 서평 관련 내용

5-읽-(3) 다양한 서평을 읽고 서평의 특성과 기능을 이해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서평의 특성 이해하기</li><li>●서평의 기능과 효과 이해하기</li><li>●하나의 책에 대한 여러 서평을 비교하기</li><li>●서평을 활용하여 좋은 책을 골라 읽는 태도 기르기</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서평을 통해 책을 먼저 경험한 다른 독자들의 견해를 접할 수 있으며, 이를 활용하여 독서 여부를 판단하거나 독서의 방향을 정함. - 정보, 해설, 평가</li><li>●서평이란 책에 대한 평가적 견해를 밝힌 글</li><li>●책에 대한 해설, 쟁점 도출 하여 동의 혹은 반박, 책의 의의나 가치에 대한 판단, 책을 읽은 소감 밝힘. - 책에 대한 소개, 안내, 광고 기능</li><li>●비평, 논평, 평론/평가보다 감상의 성격이 강한 독서 감상문은 제외</li></ul>
---	---	--

따라서 독서감상문이 곧 문학 감상문은 아니라는 점과 서평이나 비평 문보다는 초등학교 단계에서 폭넓은 독서와 연계한 자유로운 형식의 글쓰기가 권장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비문학 책의 특성을 고려한 비문학 독서감상문 쓰기 지도 내용을 반드시 교육과정에서 제시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에 대한 논의를 심화하기 위해, 2007 개정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나타난 독후활동과 관련된 지도 내용을 가능한 한 모두 추출하여 <표 6>과 같이 정리하였다.

〈표 6〉 2007 개정 국어 교과서에 나타난 독서감상문 지도 관련 내용

단원		학습목표	성취기준	초점	지도내용
3 { 1	쓰기 1단원 (정서표현)	책을 읽고, 내 경험과 비교하며 생각이나 느낌을 글로 쓸 수 있다.	쓰-(4)	독서감상문 쓰기	독서감상문 개념, 특성, 쓰는 방법
	읽기 4단원 (사회적 상호작용)	글쓴이의 생각이나 느낌을 알아보며 독서 감상문을 읽을 수 있다.	읽-(3)	독서감상문 특성	독서감상문 내용 파악(생각, 느낌 구별)



단원		학습목표	성취기준	초점	지도내용
3 }	1	읽기 8단원 (사회적 상호작용)	문학 작품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알아보고 독서 감상문을 읽을 수 있다.	읽-(3) 문학-(1)	독서 감상문 내용 파악(생각, 느낌 구별)
3 }	2	쓰기 1단원 (정서표현)	내 생각이나 느낌을 잘 드러나도록 독서 감상문을 쓸 수 있다.	쓰-(4) 문학-(1)	여러 가지 형식으로 독서 감상문 쓰기
	2	쓰기 7단원 (정서표현)	독서 감상문을 써서 서로의 생각이나 느낌을 주고받을 수 있다.	쓰-(4)	독서 감상문으로 생각이나 느낌 나누기
4 }	1	듣말쓰1단원 (정서표현)	이야기에서 기억에 남는 장면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실감나게 말하거나 독서 감상문을 쓸 수 있다.	말-(4) 문학-(4)	독서 감상문 쓰는 방법

3학년 교과서에 나타난 내용을 보면, 역시 예상대로 ‘요약하고 감상을 쓰게 지도’하는 것이 중심이 되어 있다. 다만, ‘독서감상문의 다양한 형식’에 대한 지도 내용이 나오는데, 이로 인해 독서감상문의 구조가 ‘요약과 감상’만으로 표현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추론할 수 있게 해준다. 그렇지만, 이것이 곧 비문학 독서감상문의 지도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사용지도서를 보면, ‘3-1 교사용지도서(261쪽)’와 ‘3-2 교사용지도서’ 쓰기 1단원, 7단원에 제시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독서 감상문 형식 지도(3-1 교사용지도서, 261쪽)

— 기본 형식 : 줄거리 요약, 감상

— 다른 형식 : 일기, 동시, 편지, 인터뷰, 기행문, 관찰기록문, 조사보고문, 독서카드 등

※ 관찰기록문 : 책 내용과 자기가 직접 관찰한 내용을 관련지어 글로 표현

조사보고문 : 책을 읽고 줄거리를 요약하고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나름대로 여러 가지 조사를 하여 쓰는 것

독서카드 : 읽은 날, 책 제목, 지은이, 줄거리, 느낀 점과 생각 등을  
간단히 기록  
[황미용(2008), 독서 감상문이 술술 써지네, 바다어린이]

• 독서 감상문 쓰기 지도(3-2 교사용지도서 쓰기 1단원, 7단원)

- 예상 독자 고려하여 쓰기
- 글의 내용 간추려 쓰기, 생각이나 느낌 정리하기
- 평가 기준
  - ① 독서감상문의 제목은 책의 내용, 내 생각이나 느낌을 잘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 ② 인상 깊게 읽은 부분이 잘 나타나야 한다.
  - ③ 생각이나 느낌이 잘 드러나게 써야 한다.
  - ④ 낱말이나 문장을 바르게 써야 한다.

역시 예상대로 교사용지도서에도 비문학 독서감상문 쓰기에 대한 정보  
는 제시되지 않고 있다. 4학년의 경우 ‘4-1 교사용지도서’에 나타난 듣  
말쓰 1단원과 ‘교사용지도서’ 256쪽에 수록된 내용을 보자.

• 독서 감상문 평가 기준(4-1 교사용지도서 듣말쓰 1단원)

- ① 제목은 알맞은가요?
- ② 기억에 남는 장면은 잘 썼나요?
- ③ 글의 목적에 맞게 썼나요?
- ④ 꾸며주는 말을 알맞게 넣었나요?
- ⑤ 맞춤법이 틀렸거나 어색한 부분이 있나요?

• 독서 감상문 내용(4-1 교사용지도서, 256쪽)

- 책의 내용 : 책에 나온 내용을 그대로 옮기거나 간간히 소개한 부분, 주  
로 설명하고 요약하는 말이나 문장으로 표현됨
- 글쓴이의 생각이나 느낌 : 책의 내용에 대하여 생각한 점, 느낀 점, 인상  
적인 점이나 반성할 점 등을 쓴 부분, ‘라고 느꼈다.’, ‘라  
고 생각한다.’ 등의 문장으로 표현됨

4학년의 경우에도 3학년과 크게 달라졌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밑줄 그은 ‘그대로 옮기거나’, ‘소개한 부분’, ‘설명하고’ 등에서 보듯, 책의 내용을 요약만 하라고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 문장을 유념해서 본다면 충분히 비문학 독서감상문의 특징을 살릴 수 있으리라 본다. 또, 생각이나 느낌의 문장 서술에 대한 언급도 있다. 그러나 교과서에 명시되지 않을 때 과연 교사가 적극적으로 수업에 사용할지는 의문이다.

결국 교육과정이나 교사용지도서 모두 3학년부터 비문학 독후활동으로서의 비문학 독서감상문의 실체를 일부 보여주고 있기는 하지만, 그에 대한 명시적인 언급이나 지도 내용은 제대로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는 7차 교과서와 비교해 볼 때, 거시적 독서로서 비문학 독서에 대한 인식이나 교육 내용 제시 면에서 크게 달라진 점이 없다는 말도 된다.

특히 비문학 독서 및 비문학 독서감상문 쓰기에서 중요한 인용의 경우, 중학교 3학년(9학년) 교육과정의 성취기준, ‘쓰기-(3) 인용과 해설의 방법을 사용하여 책이나 글을 평가하는 글을 쓴다.’에서 제시되고 있다. 그렇지만, 앞서 학생들의 글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9학년의 출현은 시기적으로 매우 늦은 감이 있다.

또, 교육과정 해설서에서는 인용을 ‘알맞은 글이나 자료 등을 가져와 자신의 견해를 뒷받침하는 데 활용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여, 그 개념을 매우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앞서 살펴본 인용 양상과 기능을 고려할 때, 이러한 일반적 개념 규정은 비문학 독서의 본질이나 심화독서의 효과를 살릴 수 없을 것이다.

## V. 결론

이 연구는 거시적 독서와 비문학 독서 지도의 가치와 요구를 고려할 때, 비문학 독서 지도의 활성화 방안 중의 하나로 비문학 독서와 독서감상문 쓰기를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이 때 독자의 감상이 중요한

문학 감상문과는 달리, 비문학 독서감상문에서는 책이 전달하는 사실들에 대한 언급과 표현이 특징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측하였다. 이에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의 비문학 독서감상문을 수집하여, 읽은 책의 사실들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학생들의 비문학 독서감상문을 분석한 결과, 학생들은 이미 나름대로 인용 방법을 사용하여 독서감상문을 쓰고 있었다. 그러나 그 양상이 매우 다양한 만큼이나 불안정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실태 분석의 시사점을 토대로, 7차 교육과정과 2007 개정 교육과정/교과서의 관련 지도 내용을 살펴본 결과, 비문학 독서감상문을 대상으로 한 쓰기 방법이나, 특히 인용 방법에 대한 지도 내용이 전혀 명시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비문학 독서는 학생들의 균형적 독서 능력을 신장시키는 데 기여하므로, 비문학 독서 지도 내용이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명시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 때, 비문학 독서를 초등학생에게 익숙한 독서감상문 쓰기와 연계한다면, 학생들이 책의 내용을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고 스스로 생각하여 성장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구체적으로 비문학 도서의 내용을 인용하는 방법과, 학생들의 생각이 인용하여 서술하는 과정에서 재맥락화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지도하여야 한다.

이 연구는 초등학교 6학년 1개 학급의 사례를 대상으로 한 만큼 일반화에 제약이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비문학 독서감상문의 실태를 파악하고 지도 방법의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에는 충분한 의의가 있었다. 향후 정보를 다루는 비문학적인 글쓰기 전반에서도 인용 방법을 지도하는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2011년 개정 교육과정과 교과서에서는 비문학 독서의 특성을 고려한 비문학 독서 지도 방법이 적극적으로 반영되길 기대한다.\*

\* 본 논문은 2011. 2. 28. 투고되었으며, 2011. 3. 10. 심사가 시작되어 2011. 3. 31. 심사가 종료되었음.

## ■ 참고문헌

- 권재일(1998), “한국어 인용구문 유형의 변화와 인용표지의 생성”, 언어학 22, 한국어언어학회, 59~79.
- 김명수(2003), “독서창작문 지도 방안 연구”, 서울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미선(2009), “서평 읽기 교육 방법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병욱(1995), “텍스트의 상호성과 글쓰기 : 인용을 중심으로”, 『불어불문학연구』 30권 1호, 한국불어불문학회, 599~618.
- 박건용(2005), “상호텍스트성 이론의 형성, 수용 및 적용에 대한 연구”, 『독어교육』 32, 359~386, 한국독어독문학교육학회.
- 박동진(2010), “독서감상문의 기능과 하위 유형 설정 문제”, 『국어교육학연구』 37, 국어교육학회, 347~366.
- 박수자(2005,11), “비문학 텍스트의 본질과 기능”, 『어문학교육』 31, 한국어문교육학회, 9~28.
- 박수자(2005.12), “교과독서의 본질과 과제”, 『독서연구』 14, 한국독서학회, 35~54.
- 박수자(2006,6), “추론적 읽기 지도의 내용 연구”, 『국어교육』 120, 한국어교육학회, 169~200.
- 서덕현(2001), “인용표지와 인용부호의 실용적인 문제”, 『국어교육학연구』 13, 국어교육학회, 204~235.
- 이종철(2001), “인용표현의 형태적 사용 양상과 지도 방법”, 『국어교육학연구』 13, 국어교육학회, 352~380.
- 최선경(2009), “대학생의 글쓰기에 나타난 오류분석-인용방식의 오류를 중심으로”, 『새국어교육』 81, 한국국어교육학회, 299~324.
- 교육과학기술부(2008), 초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II, 국어, 도덕, 사회.
- 교육과학기술부(2008),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 II, 국어, 도덕, 사회.
- 김도남(2003), 『상호텍스트성과 텍스트 이해 교육』, 박이정.
- 김용도(1996), 『텍스트 결속이론』, 부산외국어대출판부
- 박영민(2003), 『과정 중심 비평문 쓰기』, 교학사.
- 이필영(1993), 『국어의 인용구문 연구』, 탑출판사.
- Bazerman, C. & Prior, P. ed(2004), *What Writing Does and How It Does It*,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ublishers.
- Hartman, D. K.(1994), *The Intertextual Links of Readers Using multiple Passage*, Ruddell, R. B., Ruddell, M. R., Singer, H.(4th ed), Theoretical Models and Process of Reading, IRA.
- Orr, M.(2003), *Intertextuality : Deates and Contexts*, Polity Press.

<초록>

## 비문학 독서감상문의 인용 양상 고찰

박수자

이 연구는 거시적 독서와 균형적 독서 능력을 위해 비문학 독서 지도가 활성화 되어야 한다고 보고, 지도 방안으로 비문학 독서감상문 쓰기에 주목을 하였다. 이에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의 비문학 독서감상문의 현황을 다각도로 고찰한 결과를 토대로 비문학 독서감상문 쓰기의 교육적 시사점을 모색하였다.

비문학 독서는 초등학생으로 하여금 다양한 분야의 책을 골고루 균형적으로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러나 책의 분량이나 지식 전달이 주는 건조한 문체로 인해 깊이 있는 비문학 독서를 하기가 어렵다. 이에 비문학 독서를 깊이 있게 하기 위하여 초등학생들이 친숙한 독서감상문 쓰기와 연계할 필요가 있다.

다만, 비문학 독서감상문 쓰기에서는 읽은 책의 내용을 전체 요약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므로, 읽은 내용 중 인용해야 할 것과 인용의 방법에 대하여 지도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지도 내용이 된다고 보았다. 학생들은 원전을 인용하여 독서감상문 속에서 재맥락화하는 방법을 배우는 과정을 통해, 책의 내용을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고 스스로 생각하여 성장하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고 본다.

이 연구는 향후 정보를 다루는 비문학적인 글쓰기 전반에서도 인용 방법을 지도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향후 2011년 개정 교육과정과 교과서에서는 이에 대한 지도 내용의 보완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핵심어】 비문학 독서감상문, 상호텍스트성, 인용, 인용표지, 독후활동, 환언(바꿔쓰기), 요약

<Abstract>

Quotation Expressions Analysis  
on Expository Text Book Reports

Park, Soo-jah

The significance of quotation is day by day elevated in cultural criticism, because quotation is an important mechanism or device of intertextuality. This paper aims to review an aspect of quotation expressed in the 6th elementary students' expository book reports, and analysis its presentation, proposing better reading and writing instruction for expository book report writing.

In their book reports, it is found that students impressed their feelings well, but direct quotation is rarely expressed and summary-comment, too. There are found so many paraphrases relatively, but mostly immature expressions.

Then, this article try to analysis current curriculum, elementary textbooks, and teachers' teaching guideline books for quotation pedagogical contents. But few contents are found. So this paper proposes that explicit instruction of quotation is necessary and important for better reading and writing a expository book report.

**【Key words】** Expository Book report, intertextuality, quotation,  
quotation marks, reading activity, paraphrase, summary